

# 外國人投資企業에 있어서의 技術吸收度差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Technological Absorption Level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龍 世 重\*

### 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mportant technology transfer channels from advanced countries to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he answers for the problems: if there is any difference of technology absorption level between the foreign affiliate companies, and what are the major factors which explain the difference. It is shown that the technology absorption level of foreign affiliate company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management control level by foreigners, to the rate of exportation, but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competing company and to the nature of generality of the technology.

### I. 序 論

後進國과 開發途上國의 企業들이 必要한 先進外國의 技術을 導入하는 데는 여러가지 經路와 方法을 택할 수 있다. 外國技術의 導入經路를 分類하는 데는 아직 통일된 方案은 없지만, 技術導入契約과 外國人 單獨投資 및 合作投資에 의한 技術移轉이 중요시 되고 있다. [1], [12], [35],

우리나라의 경우 1980年末 현재 總技術導入의 件數는 1726件이며, 外國人 直接投資件數는 862件이어서 件數만을 비교하여도 外國人 直接投資는 技術導入契約 件數의 50%에 相當한다. [2], [3] 더구나 總技術導入 件數中 外國人 投資企業의 技術導入 比重은 平均 20~30%가 되므로, 本 導入方案의 先進國 技術導入 經路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外國人 投資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經營者나 技術者의 國內企業에로의 轉職이나, 國內에서의 部品

구매 원료조달을 통한 二次의 技術波級效果를 감안하면 총체적인 技術移轉效果는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기술도입이므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32] 그러나, 多國籍企業의 後進國 및 開發途上國에의 直接投資를 통한 技術移轉에 對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18], [30], [39]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면 아래와 같다.

•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側 目的은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이 아니며 [21], [22]

• 外國人 投資企業에의 技術移轉은 母企業과 子企業間의 內部移轉이지 外部移轉이 아니며 [27]

• 移轉되는 技術은 現地國의 經濟事情이나 技術水準과는 겉이 큰 부적절한 것이며 [29], [37]

• 多國籍企業은 研究開發 活動을 中央集中化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開發途上國에서는 生産설비의 運營 및 維持의 單純기술만이 移轉되며 [15], [34]

• 技術費用은 시설, 원료, 部品の 獨占的 供給價格에 포함시키거나 제품의 購買價格의 하향조정을 통해 부과되므로 상당히 크다. [17], [25], [36]

• 현지購買契約이나 經營者 및 技術者의 移動을 통

\* 亞洲大學校 經營大學 助教授

\*\* 本 研究는 科財團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임.

한 技術擴散도 극히 制限的이며, 品質管理나 運營管理 및 維持보수等的 단순기술에 불과하다. [27], [30]

以上과 같은 비판들에 對하여 反論이 없는 것은 아니나, 後進國과 開途國의 立場에서 外國人 直接投資經路를 통한 技術도입을 促進하려면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라는 問題에 示唆하는 바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 外國인 投資企業의 技術移轉에 關한 몇편의 論文이 發表된 바 있으나, 어떻게 하면 技術移轉의 效果를 높일 수 있는지에 關한 問題는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7], [8], [9], [20]

本 論文은 外國人 單獨投資, 合作投資企業間에는 技術吸收度에 있어서의 差異가 있는가. 差異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因子들은 무엇이며, 技術吸收度와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의 問題를 關係문헌을 調査하여 몇가지 假說을 設定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대상으로 實證的인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 II. 研究假說

開發途上國에서의 技術變化 段階는 선진국에서의 기술변화 형태와 다르다는 사실을 金仁秀 教授는 지적하였다. [6]

즉, *Abernathy*와 *Utterback*의 기술變化的 動態的 模型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發生하면, 流動期→過度期→硬化期를 거치면서 제품 및 工程技術의 諸特性이 變化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産業技術은 實踐期→消化期→改良 및 自體開發期的 段階로서 進化한다는 것이다. [13],

各 段階에 따라 기술의 원천, 기술적 課題, 技術人力, 生産能率, 기술도입형태, 市場, 原料 및 部品の 供給源等이 달라진다고 한다. 한편 金基永, 鄭求鉉 教授는 中進國 기업의 기술 蓄積段階를 導入·消化→改造 및 土着化→新製品 및 공정기술의 개발→기술輸出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5],

또한 Judet와 Perrin은 技術習得과정을 技術輸入(importation)→技術의 再生(reproduction)→技術의 適應化(adaptation)→새로운 기술의 開發(innovation)의 네 發展段階 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19]

開途國의 産業技術의 動態에 對한 두 모형은 실은 特定 製品과 제조공정에 對한 기술변화가 아니라, 企業單位的 또는 産業水準의 技術發展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本 論文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통한 技術導入效果에 關連된 問題를 연구하려는 것이므로 分析單位가

企業單位가 된다. 外國人 投資企業間에 기술의 消化吸收度의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은 內國人 所有의 企業間에 技術發展段階가 다르다는 사실과 대비해 볼 수 있다. 特히 內國人과의 合作投資企業은 여러가지 條件에 따라서 外國投資側의 母企業에 全적으로 必要한 기술을 提供받는 完全依存형태에서부터, 도입된 기술을 現地事情에 맞게 改造 및 改良하고 獨立的으로 必要한 기술을 開發하여 使用하는 自立形態의 企業도 볼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技術消化吸收度を 定量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方法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金仁秀 教授의 技術變化段階, 金基永, 鄭求鉉 教授의 中進國企業의 기술축적단계와 Judet Perrin의 技術習得過程(Mastering Process of Technology)을 참조하였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技術의 消化吸收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는 外國投資者의 資本참여도, 經營支配度, 輸出比重, 경쟁狀態, 技術의 尖端性, 國籍等을 택하였다.

독립변수 相互間에도 상관성이 높는데 이들의 關係를 이해하는 데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投資目的에 의한 分類가 도움이 된다. 外國人企業의 投資目的도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分類하기가 어렵겠으나 개도국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外國人投資는 國內天然資源이 풍부하기 때문에 資源開發型은 별로 없으며, 低賃金水準의 노동력利用을 目的으로한 국내시장指向型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2] Michalet는 輸出指向型을 작업장형 子企業(Workshop Affiliate), 국내시장 지향형을 仲介型 子企業(Relay Affiliate)이라 區分하고 작업장형 자기기업은 多國籍企業의 單獨投資를 통한 完全支配의 子會社이므로 技術移轉의 內部移轉이지, 國際移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7]

輸出指向型의 현지회사는 大部分의 원료와 部品를 母企業 또는 第3國에 있는 子企業에서 들여와 單純技能人力에 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비록 그 製品이 産業分類上 技術集約的이고 尖端的인 産業에 屬하는 것이라도 移轉되는 기술은 품질관리나 작업관리의인 일 반적 經營管理 技術에 불과하며, 고도의 제품設計기술, 공정개발기술은 移轉되지 않는다. 部品, 原料의 현지 購買가 적기 때문에 기술의 波及效果도 期待하기가 어렵고 종업원의 移動에 依한 技術의 擴散도 크지 못하다. 신제품개발은 全적으로 母企業 本部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전담함으로써 R&D活動은 거의 없으며 生産에 있어서의 단편적인 改善에 限定된다.

國內市場指向型은 후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장벽을 극

복하거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地位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현지기업과의 合作投資形態로 進出하는 경우이다. 外國投資側은 完全所有를 選好하지만 현지정부의 政策에 따라 불가피하게 合作會社를 設立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市場, 對政府 및 現地の 종업원 관리등의 문제때문에 현지事情에 精通하고 經營능력이 있는 企業과의 合作會社를 設立하는 경우도 있다. 國內市場을 대상으로 生産판매하는 것이므로 市場規模의 영세성으로 plant와 설비를 축소시키고, 신속적이고 노동집약적인 生産기술로의 改造가 必要하다. 한편 生産이 母企業에서 보다 比較率의이어서 發生되는 生産費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부 원료와 부품을 下請方式에 의하여 현지조달을 한다.

생산설비의 개조, 제품의 변경, 부품의 현지조달에는 母會社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현지 합작기업내에도 部分的인 연구 및 개발활동이 전개된다. 合作投資를 허용하는 업종은 국내기술로 生産할 수 없거나, 큰 資本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설비 plant일 경우가 많으므로 輸出指向型보다 資本集約度나 기술집약도가 높을 것으로 期待된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현지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生産비용과 品質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母企業에 對한 기술 依存度가 낮아지고 自體的인 기술개발活動이 높아진다.

小島의 日本系와 美國系 海外子會社에 의한 開途國技術移轉에 관한 論文은 上記의 서술과는 다른 論指를 펴고 있다. [24] 日本系 子會社는 勞動集約的이며, 전통산업형이고, 單純산업형 및 中小기업형이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기술水準에 적합한 기술이고, 수출지향형이며 合作投資型이어서 技術의 擴散效果도 크다 한다. 반면 美國系 會社는 자본집약적이고, 고도기술형이며, 기술자체가 복잡하고 大企業型이며, 현지시장을 목적으로 한 獨占的, 과정적 單獨投資가 많아서 현지국가의 경제·기술水準에 적합치 못한 反轉된 기술移轉(reversed ordered technology transfer)이라 한다. 朴乙鏞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小島의 假說은 韓國의 경우 誇張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8]

開途國企業의 입장에서 기술수입을 목적으로 外國會社와 合作投資를 하는 경우는 傳統産業에서 보다 고도기술의 近代産業에서 일 것이며, 이 경우 外國企業에 對한 技術依存度는 높을 것이다. 반면에 국내에 이미 同種 또는 類似제품이 生産되고 있고, 기술이 일반화되어 경쟁기업이 존재하며, 기술의 消化吸收에 문제가 없는 전통産業에 있어서의 合作投資企業은 개도국에 미치는 技術移轉效果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要約하면 表1과 같고 檢證하고자 하고

가설은 表2와 같다.

表 1. 外國人投資企業의 두 形態

特性	形態	輸出指向形 또는 作業場形子會社	國內市場指向形 또는 仲介形子會社
外國側投資目的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국내시장
外國側所有持分率		단독투자 또는 다수참가	동등참가 또는 소수참가
經營支配度		모기업에 집중	분권화
技術의 特性		근대산업의 단순 조립공정 또는 전통산업	근대산업
技術移轉		內部移轉	外部移轉 및 內部移轉
子企業의 技術吸收度		낮다	높다
研究開發活動		거의없다	상당히 있다
技術의 波及效果		거의없다	상당히 있다
原料 및 部品調達		모기업 또는 해외의 자기기업	일부국내조달
生産設備		해외조달	일부국내조달

表 2. 研究假說

假設번호	內 容
1.	外國投資側의 資本參與度가 클수록 技術吸收度는 낮다.
2.	外國投資側의 經營支配度가 클수록 吸收度는 낮다.
3.	總 生産中 輸出比重이 클수록 技術吸收度는 낮다.
4.	競爭企業이 많을수록 技術吸收度는 높다.
5.	近代産業의 外國人投資會社가 傳統産業의 子會社보다 技術吸收도가 낮다.
6.	日本系 直接投資會社가 美國系보다 技術吸收도가 높다.

### Ⅲ. 資料수집방법 및 分析結論

데이터의 수집방법은 質問書法을 채택하였다. 大韓商工會議所刊(1979년 12월) 韓國外資企業體名鑑 목록에 수록된 총 870개 外國人投資企業中 172個 會社를 無作為로 추출하였다. 選定된 기업에 質問書를 우송하였고 回收된 것은 22件이었다. 이 중 금융부문 合作會社

1件을 제외한 21件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21個 會社의 生産開始年度, 年間 總賣出額 規模, 從業員數, 産業, 國籍, 資本參與率別 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生産開始年度別로는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최소 1건, 최대 4건, 평균 3건으로 고루 分布되었고, 年間 賣出額規模 別로는 10억원미만 5件, 10억이상 100억미만 13건, 100억이상 2건, 불응답 1건이었다. 本社 職員을 포함한 總 從業員類別로는 100명미만 9건, 100명 이상 500명미만 9건, 500명이상은 3건에 불과했다. 産業別로는 금속 및 금속가공 3건, 석유 및 화학 2건, 기계 및 전자 7건, 섬유 완구·잡화가 9건이었고 外國 投資者의 國籍別로는 日本 19件, 美國 2件이었다. 外國側 株式持分率別로는 50%미만 8건, 50% 3건, 51% 이상인 10건이었다.

質問書作成은 研究者의 事前 經驗을 바탕으로 總 38個 問項 構成을 보면 外國人 投資企業, 內國人投資會社, 外國人投資會社에 對한 會社名, 法的 形態, 設立 日字, 生産開始時期, 年間 總賣出額, 總從業員數, 主要生産物, 國籍 등 一般事項의 14問項과 外國投資側의 投資參與率, 經營上의 支配度에 관한 것이 7問項; 技術導入·外國人 技術者·原料部品·施設導入에 관한 것이 7問項; 研究開發 및 技術의 消化 吸收度에 관한 것이 6問項; 市場에 관한 것이 4問項이었다.

답변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名鑑에 실려 있는 生産 製品 및 規模, 從業員數, 國籍, 投資比率, 登錄年月日의 內容과 回答內容과를 比較한 結果 名鑑 作成時點과 調査時點과의 時差 때문에 發生하는 약간의 편차를 제외하면 신뢰성이 있었다. 그 外의 問項에 對한 답변도 모순성이 거의 없어 資料內容에 對한 信빙 도는 높았다.

假說檢證을 위해서는 Spearman/Kendall 순위 상관계수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結果는 表 3에 정리되어 있다.

表 3. 分析結果 : a) Spearman 順位相關係數  
b) Kena11 順位相關係數

假說番號	從屬變數	獨立變數	相關係數	有意水準
1	技術吸收度	外國人 資本參與率	0.0965 <sup>a)</sup>	0.343
2	技術吸收度	外國人 經營支配度	-0.4219 <sup>a)</sup>	0.041
3	技術吸收度	輸出比率	-0.2823 <sup>a)</sup>	0.114
4	技術吸收度	競爭企業數	0.3749 <sup>a)</sup>	0.070
5	技術吸收度	産業의 傳統性	0.3434 <sup>b)</sup>	0.017
6	技術吸收度	國籍	0.3761 <sup>b)</sup>	0.011

假說 1과 3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고, 假說 2와 5는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고 假說 4는 10%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假說6은 상관관계가 0.4157이고 유의수준 5%에서 채택되어야 하나 가설이 정당하였다면 상관계수가 負(Negative)값을 가져야 했었다. 따라서 假說 6의 경우 結果만을 놓고 본다면 가설에서 제시한 것을 반대로 해석하여 日本系 直接投資企業이 美國系보다 技術吸收度가 낮다고 해야하나 추출된 企業이 美國籍을 가진 것은 2件에 불과했고 그것도 傳統産業型이어서 그 같은 結論을 내릴 수가 없었다.

假說 1의 경우 기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관계수가 陽(positive)의 값을 가지게 된 것은 추출된 企業 가운데 日本人投資의 單純加工型 輸出會社가 多數 포함되었던데 원인이 있었다.

假說 3은 유의수준 10%에서 기각되었으나 유의수준이 0.114이므로 假說의 正當性을 상당히 뒷받침한다고 보겠다.

以上の 檢討內容을 종합하면, 外國 投資側의 經營支配度가 클수록 輸出 비중이 클수록 外國人 投資企業의 技術 吸收度는 낮으며, 競爭企業이 많을수록 技術이 傳統의 産業에 속한 것일수록 技術吸收度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資料의 統計處理로 부터 밝혀진 사실들은 1) 生産開始 日字가 빠를 수록 대체로 技術吸收도가 높고, 2) 會社의 規模와 技術吸收도와는 관계가 적으며; 技術吸收도가 높은 會社에서는 3) 外國人 技術者 比重이 낮고, 原料 部品施設의 國產化 率이 높으며; 4) 研究開發 組織, 人力을 갖추고 있고 特許나 뚜렷한 研究結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結 論

後進國과 開途國에서 先進國 技術導入을 어떠한 經路를 통하여 어떻게 效果의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重要한 課題이다. 外國人 投資企業은 先進技術 移轉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技術移轉 效果를 높이기 爲해서는 技術移轉에 對한 메카니즘을 알아야 한다.

本 研究의 分析結果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少數 外國人 投資企業을 對象으로 단편적인 質問에 對한 對答을 통한 實證分析이기 때문에 一般의인 結論을 도출하기 어렵겠으나 重要한 몇가지 點을 示唆하고 있다.

첫째, 輸出指向型 또는 作業場型 子企業은 技術移轉 效果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범주의 外國人 單獨投資나 合作投資 會社는 外國人 所有 持分率

이 크고 原料, 部品, 施設의 輸入比重이 높으며 導入 技術은 單純한 加工組立 또는 勞動集約的인 一般의 技術이다. 특히 傳統產業에 속하는 企業은 비록 所有持 分이 높더라도 經營支配度가 낮는데 이 같은 事實은 이 部問의 技術은 굳이 流出에 對한 罣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一般化된 技術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國內市場型 또는 仲介型 子企業은 經營權을 어느 측에서 갖느냐가 技術移轉 效果에 對한 影響을 미친다. 國內側 파트너가 外國 多國籍企業의 部品組立 工場이나 販賣代理店役割에 머물러서는 企業의 發展도 기대하기 힘들거니와 先進國 技術의 消化·吸收에도 問題가 있다. 經營權에 對한 이니시어티브를 國內 投資側이 갖는다면 國內市場의 실정에 맞는 製品을 選擇 하고 改造·改良을 하고 製造技術도 國內 事情에 맞게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生産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活動은 必然的으로 研究, 開發 活動을 促進시키며 國內市場이 커지고 技術開發能力이 增大함에 따라서 外國 投資側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自立의 단계를 期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外國人 投資 政策은 技術導入 效果를 높이기 爲해 신중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技術의 消化 吸收는 時間과 勞力을 要한다. 國內科學技術 水準이 낮고 外國 投資側이 제공하는 技術의 尖端性과 復雜性이 增大할 수록 外國 投資側에 對한 依存度는 높을 수밖에 없다. 外國 尖端技術을 급히 導入하기 위하여 外國人 投資側에 높은 資本 參與度, 높은 經營權을 부여 하고 國內 市場을 自由롭게 開放한다면 技術의 隸屬性을 가져오고 國內技術의 自立度를 높이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外國人 投資에 對한 法的·規制는 國內 企業이 技術導入을 위한 合作投資企業을 設立하려거나 하였을 때 有利한 立場을 마련해 주는 堡壘이기도 하다.

### 參 考 文 獻

1. 權哲信, "技術移轉論의 系譜와 理論體系," 技術移轉, 第2卷 第2號, 1981.
2.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白書, 1981.
3.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1982, 1982.
4. 大韓商工會議所, 韓國外資企業體名鑑, 1979.
5. 金基永, 鄭求鉉, "技術輸入과 技術開發에 關한 比較研究," 產業과 經營, 第17卷 第2號, pp. 62~66, 延世大學校, 1980.
6. 金仁秀, "產業技術의 變化形態와 對應策,"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7. 朴宇熙, "韓國에 있어서의 輸入技術의 吸收와 擴

散에 關한 實證分析—石油化學工業事例," 經營論集, 第19卷 第2號, 서울大學校.

8. 朴乙鏞,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와 技術導入,"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9. 裴茂基, "技術의 導入, 受容 및 擴散—韓國나이론 産業의 一事例研究," 經濟論集, 第19卷 第1號, 서울大學校,
10. 邊衡尹, "韓國鐵鋼工業의 技術蓄積—浦項製鐵을 中心으로—," 經濟論集, 第19卷 第2號, 서울大學校.
11. 李軫周, "企業에 있어서 技術革新의 動態的 模型" 韓國OR學會誌, 第3卷 第1號, 1978.
12. 崔亨燮, 開發途上國의 科學技術開發戰略, 第二部, pp. 180~182, 韓國科學技術院, 1981.
13. Abernathy, W.J. and J.M. Utterback,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Vol. 80, pp. 41~47.
14. Agodo, O., "The Determinants of U.S. Private Manufacturing Investments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9~107, No. 5, 1978 (Winter)
15. Behrman, J.N. and W.A. Fischer, *Overseas R&D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mpanies*,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Cambridge, Massachusetts, 1980.
16. Behrman, J.N. and H.W. Wallender, *Transfer of Manufacturing Technology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Ballinger, 1976.
17. Chee Yong Hee, "Costs of Contractual Transfers of Technology and a Suggested Evaluation Scheme," pp. 233~242, 經商論叢 第1輯, 西江大學校, 1979.
18. Constantino, R., "Global Enterprises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First Congress of the Third World Economists*, Algiers, 1976.
19. Judet, P. and J. Perrin, "Transfert de Technologie et Développement," IREP, Université de Grenoble, 1976.
20. Jung Ku-Hyun and Kim Kee-Young, "Transfer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Knowhow through Multinational Corporation: A Case Approach," 경제 발전과 경영기술 전략에 關한 국제회의 발표논문, 1978.

21. Friedmann, W.G. and G. Kalmanoff,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pp. 84~124,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and London, 1961.
22. Friedmann, W.G. and J.P. Béguin,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Recent Trend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1.
23. Kim Kwang-Doo, "Cost and Appropriateness Analysis of Technology Imports with Reference to Korea," Korea-France Joint Symposium, KIEI, 1981.
24. Kojima,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977.
25. Kolde, Endel-Jakob, "International Technology Market and Developing Countries," *EKI*, Vol. XXV, No. 1, pp. 35~49, March 1977.
26. Lasserre, P. and M. Boisot,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European to Asian Enterprises: Strategies and Practices in the Chemical and Pharmaceutical Sectors," INSEAD, 1980.
27. Michalet, C.A., "Transfer of Technology by TNCs: Traditional vs New Forms," Korea-France Joint Symposium, KIEI, 1981.
28. Moxon, R.W., "The Motivation for Investment in Offshore Plants: the Case of the U.S. Electronics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51~66, Spring 1975.
29. Nwosu, E.J. "Some Problems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Transfer,"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13, No. 1, pp. 83~93, 1975.
30. O.E.C.D., *Transfer of Technology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Vol. I, pp. 10~39, Paris, 1977.
31. O.E.C.D., *North/South Technology Transfer: the Adjustments Ahead*, pp. 8~24, Paris, 1982.
32. Pursell, G. and Rhee Yung Whee, "A Firm Level Study of Korean Exports," Progressive Report, The World Bank, Dec. 1978.
33. Reuber, G.L., "Some Aspects of Private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outheast Asia Development Advisory Group, New York, 1974.
34. Ronstadt, R.C., "International R & D: the Establishment and Evol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road by Seven U.S. Multinational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7~24, Spring/Summer 1978.
35. Rubenstein, A.H., "Technical Inform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Technical Transfer -the Need for a Synthesis," *R&D Management*, Vol. 6, pp. 145~150, 1976.
36. Teece, D.J.,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Resource Cost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Ballinger, 1976.
37. Teitel, S., "On the Concept of Appropriate Technology for Less Industrialized Countr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11, pp. 349~369, 1978.
- 38) Yoon Suck-Chul, "Case Analysis: How Foreign Technology was Imported, Absorbed, and Diffused in the Machinery Sector of Korean Industry," *The Practice of Management*, pp. 48~60, Vol. 13, No. 1, June 1979.
39. Vaitos, C.V., "Bargaining and the Distribution of Returns in the Purchase of Technology by Developing Countries," *Underdevelopment & Development*, ed. by H. Bernstein 1973.
40. Wionczek, M., "Notes on Technology Transfer through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Development and Change*, Vol. 7, No. 2, pp. 135~155, April 1976.